논어 16편 계씨 2장 · 원문·풀이

# 孔子曰：「天下有道，則禮樂征伐自天子出；天下無道，則禮樂征伐自諸侯出。自諸侯出，蓋十世希不失矣；自大夫出，五世希不失矣；陪臣執國命，三世希不失矣。天下有道，則政不在大夫。天下有道，則庶人不議。」

독음 · 공자왈 천하유도 즉례악정벌자천자출 천하무도 즉례악정벌자제후출 자제후출 개십세희불실의 자대부출 오세희불실의 배신집국명 삼세희불실의 천하유도 즉정부재대부 천하유도 즉서인불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도가 있는 세상에서는 예악과 정벌의 권한이 제자리에 있다. 제후·대부·가신이 권한을 빼앗으면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孔 구멍 공 공 / 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天 하늘 천 천

下 아래 하 하 / 有 있을 유 / 道 길 도 도 / 則 곧 즉

禮 예도 례 례 / 樂 즐길 락 / 征 칠 정 정 / 伐 칠 벌 벌

自 스스로 자 / 出 날 출 출 / 無 없을 무 무 / 諸 모든 제 제

侯 과녁 후 후 / 蓋 뚜껑 개 개 / 十 열 십 십 / 世 세상 세 세

希 바랄 희 희 / 不 아닐 불 / 失 잃을 실 실 / 矣 어조사 의

大 클 대 대 / 夫 지아비 부 부 / 五 다섯 오 오 / 陪 쌓아올릴 배 배

臣 신하 신 신 / 執 잡을 집 집 / 國 나라 국 국 / 命 목숨 명 명

三 석 삼 삼 / 政 정사 정 정 / 在 있을 재 재 / 庶 여러 서 서

人 사람 인 / 議 말할 의 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